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봉우컬럼

뇌의 힘

“두뇌에는 온갖 연장이 다 있다.”
 이것은 기도원 개보수를 하는 봉사자들에게 내가 던진 말이다. 무슨 말일까? 머리를 쓰면 다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두뇌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천재의 대명사 불리는 물리학자, 상대성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의 5%만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한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창1:27)는 말씀이 인간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우주를 정복하고, 최첨단기계를 만들고, 난치병으로 고치고... 그런데 왜 유독 우리의 뇌는 돌아가지 않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뇌는 생각에 의해 움직인다. 생각이 뇌의 프로그램인 셈이다. 그런데 ‘못한다’는 생각이 입력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뇌지만 일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셨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 속에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이 있고, 세상의 머리가 될 지혜도 있다. 그러나 ‘못한다’는 생각이 뇌를 스톱시키고 있으니 못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뇌는 움직이고 불가능이 없게 되어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된다.
 둘째는 뇌를 쓰지 않으니까 뇌에 녹이 슬어 안 돌아가는 것이다. 자주 쓰는 열쇠는 빛이 난다. 하지만 쓰지 않고 방치된 열쇠는 녹슬어 기능을 상실한다. 어디 열쇠뿐인가. 비행기도, 자동차도 우리의 뇌도 그렇다.
 20대를 기점으로 늙어가는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 계속 성장시키는 법은 바로 뇌를 계속 쓰는 것이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연구해라. 당신의 두뇌에는 온갖 연장이 다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장성예루살렘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개최된 청소년연합수련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기도원에서는 청소년연합수련회부터 하계산상집회까지 총 4주 동안의 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4개월에 걸쳐 기도원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보수했다. 총회장목사님께서서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점점 부재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번 기도원 점검 및 보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다. 특히 기도원을 오고가는 대형버스 선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회사, 보험가입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를 선택할 것을 주문하셨다.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세부사항까지도 직접 점검하시며 성

될 수 있다.
 또한 누구라도 내비게이션에 같은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똑같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듯,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 내비게이션이다. 그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면 영·혼·육의 성공에 이를 수 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그들 모두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 역시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오

것이 아니라 배우고 노력해서 네 영혼이 성장하게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나는 70이 가까운 나이에 하루에 20문장씩 중국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나도 이 나이에 노력한다. 그러나 공부에도 때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너희 때에 공부해야 한다.
 ‘젊음’은 생각이고 정신이지 나이가 아니다. 젊은이라도 현실에 불평불만하며 부정적인 생각,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는 부정적인 열매, 썩어빠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현실을 타하지 않고, 젊은이의 장점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거목(巨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



제 18회 청소년 연합수련회(중교등부) 장성예루살렘기도원

공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셨다.
 전국에서 모여든 청소년들은 모두가 ‘JESUS’가 쓰인 티셔츠로 갈아입고 청소년수련회에 입했다.
 총회장 목사님은 매일 저녁 집회를 통해 거듭 지식함양을 강조하셨다.
 “나는 너희를 세계적 인물로 만들 자신이 있다. 내가 그 성공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 봉어빵틀에 재료를 넣으면 봉어빵이 되어서 나온다. 그 반죽이 한국 밀가루, 미국 밀가루, 중국 밀가루 등, ‘어떤 밀가루’를 썼느냐를 따지지 않고 빵틀에 들어가기만 하면 봉어빵이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예수님이라는 봉어빵틀 안에 들어가 기만 하면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도 7시간을 기도했다. 습관이 인생은 만든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은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 나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나이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나는 다각적인 공부에 매진할 것이다. 지난 시절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라. 10년 된 산삼은 사람들이 산삼을 고르지만, 100년 된 산삼은 산삼이 사람을 고르게 된다. 그런 자가 되라.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라. 너희들은 계절로 말하면 초여름이다. 한참 성장해야할 시기란다. 몸만 성장할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위대한 생각을 갖고, 위대한 결단을 해서, 매일매일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미션 서바이벌, 경배와 찬양, 침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즐겁고 값진 수련회를 보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 혹시라도 세상 것으로 물들고, 세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유혹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청소년수련회는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이 수련회를 통해 한 명의 청소년만 변화되어도 이 나라가, 세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훈
 honny0116@gmail.com

이초석 목사 하계산상집회

8월 4일(월) ~ 21일(목)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1600-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요11:35~44)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

이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롬4:17). 한 마디로 그 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많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 안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돈을 내야지요?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내밀지 않으면 절대 내어주지 않지요? 그러나 돈을 주면요? 학벌이 어떻던, 얼굴이 어떻던, 가문이 어떻던, 성격이 어떻던 물건을 주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능력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내밀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홍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서 태산 같아 보이지만,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밟 등상 삼으시는 분께는 정말 가소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사건으로 비롯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몹시 사랑하는 자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보이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살리셨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라합.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 앞에 모두 공통적으로 붙은 말은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크게 역사하신 것은 이들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님이 물 위로 걸어요
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에
걸게
해



달
라고
합니다.

그의 믿
대로 그는 물 위
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자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물 위에 걷게도 하고, 물속으로 빠지게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떠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은 이유를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10:52)고 하였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은 것도(눅8:48),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마15:28) 역시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간증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앓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 앓은뱅이에게서 걸을 만

한 믿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 지라”(행14:9~10).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십니다(살전2:13).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시지요? 세상에는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가볼만한 곳도 너무 많고,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돈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

렇
습
니
다.

하나님의 능
력이 무한하신
데 우리의 믿음이 없
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27년 전쯤의 일입니다. 속리산 근처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나 고치라’며 비꼬았나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여 이 목사님을 비롯해 사모님과 목사님의 어머니까지 제가 오면 아이가 꼭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40일 작정금식기도를 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당도해서 강사 방이라고 안내를 받은 곳은 주최측 목사님 사택의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방에 누가 딱 하니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환한 대낮에 컴컴한 방에 들어가니 잘 보이지 않아서 더욱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사인 내 방에 데려다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아들을 안수했는데 아들이 나아서 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날이 그 가족

앞의 문제는 허상이다 실상은 믿음대로 된다

의 40일 금식기도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아들이 장성하여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족의 믿음이 오늘의 아들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9월 8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습니다. 본래 5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미뤄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짜로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 믿음대로 가장 좋은 추석명절에 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이 나라가 평화통일 되리라 믿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단체가 죽었습니까? 아들이 필요합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나사로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들은 다 깨질 것이고, 우리의 실상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세요. 돈을 많이 내면 값진 것을 살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할렐루야!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가 예수님께 들려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이를이나 더 머물다 떠나셨습니다. 그 초상집에 당도하셨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보자 너무 늦게 오셨다고, 왜 이제 오셨냐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두 자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너는 내가 저를 살릴 줄 믿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따위는 예수님께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백골이 되어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겁니다. 마른 뼈들에 살을 입혀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므로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겔37). 그들이 ‘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제 18회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7.28 ~ 30)
복 있는 젊은이가 되자!



결정장애증후군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고민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사람의 삶 자체가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선택은 바로 점심 메뉴를 고를 때가 아닐까 한다. ‘오늘은 뭐 먹지?’ 부터 시작해서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등등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가장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우리 과 동기들이 농담 삼아 ‘결정장애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만들었다. 결정장애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대다수가 대학원생이라며,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망설이기만 하고 섣불리 선택을 하지 못해 망설이다 대학원까지 온 것이라고 우스개삼아 이야기한다. 요즘에는 결정장애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배고픈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등등... 배고프다, 재미있다, 슬프다 등,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해야 하

는 상황에서 ‘뭐뭐한 것 같다’는 식의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결정장애이다. 이러한 잘못된 간접화법의 이면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과 결정장애로 선택을 유보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A라면, ‘나는 A가 하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내 감정을 드러낸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부담 없이 피력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며, 상대방이 내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이것이 배려인지 우유부단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인간 군상들 속에서도 당당히 우리가 지닌 예수님의 색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지위나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크리스천이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표(言表)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에 에스테르는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한 민족의 위기를 구할 수 있었다(에스테르4~5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자.

전환지
ppjee@hanmail.net

말의 힘 !

“내 입 가지고 내 맘대로 말도 못해?”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거 같지만 잘못된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곧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잠18:21). 정말 내 입이라면 내가 주인이 되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말, 나를 살리는 믿음의 말, 내가 잘되는 축복의 말, 내가 사랑 받을 수 있는 예쁜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뇌 학자들의 연구결과, 전체 뇌 세포 230억 개 중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입에 자갈을 물려서라도 잘못된 말,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 실패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라도 돈 한번 맘껏 벌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어 보려는데 믿어지지 않더라며, 그는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 독촉 받을 때보다 더 괴롭다면서 “과거에 자신이 거침없이 했던 말을 취소할 방법이 없겠냐?”면서 몸부림을 치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삶에 씨가 되어 결국엔 내가 거두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다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뭔가에 묶여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 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Good News

19세기 미국의 정치인으로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잉거솔은 사상이며 웅변가로서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강연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무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다.”라고 외치면, 잉거솔은 “성경은 허위이고 우화이며 잔인하고 음란하다.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일종의 순간이 다가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곁에 있던 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을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펠리는 목소리로 잉거솔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을 남겼으나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인지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에게 무시무시한 지옥까지 함께 가자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였기에 잉거솔은 딸에게 현명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깨닫고도 돌아키지 못

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속에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끔찍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어서 제발 이 곳에만큼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끔찍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여름방학을 알뜰하게 보내자

::Edu Section::

1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 우리 자녀들에게 가뭇의 단비처럼 여겨지는 여름 방학이다. 하지만 여름 방학은 겨울 방학에 비해서 기간이 짧다. 수년 전만 해도 여름 방학기간 동안, 성적 향상을 위한 선행학습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가 문화의 발달과 함께 많은 자녀들이 해외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가족 휴가와 성경 학교, 여름 수련회를 비롯하여 장단기 어학연수 및 OO체험 캠프 등, 자녀들이 직접 보고 겪으며 배우고 올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학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각종 캠프들도 좋지만,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자녀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해 미리 탐방도 해보고, 핵가족화가 되어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가

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많은 여행 계획으로 자칫 여름 방학을 어영부영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책상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자녀의 미래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학기 중에는 등교시간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던 아이들이 방학과 동시에 한없이 늘어지기도 하고, 늦도록 밤을 새우면서 밤낮이 바뀌는 등 무질서와 무계획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실천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계획표가

아닌 이번 방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숙제를 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 교육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8월 말, 개학이 다가오면 밀린 숙제로 밤을 새우는 학생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개학 후 학교 내신 성적과 직결되는 숙제를 하지 않아 후회와 탄성의 소리를 내는 많은 학생들도 무수히 보아왔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후회의 소리를 내지 않도록 자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알뜰하고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보자. 자녀에게 보내는 부모의 진심어린 관심과 사랑과 열정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청춘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해질 충분한 여지가 있다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